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에 활용할 소리대본 작성법

Use of Voice Script For Speech Characterization

이기호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Ki-Ho Lee(egiho@ks.ac.kr)

요약

본 연구는 배우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한 과정으로서, 언어적 성격창조를 위해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에 활용할 소리대본의 작성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여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는 성격분석 방법을 터득하는 한편, 다양한 연기훈련으로 연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연기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배우의 연기역량은 신체적 표현능력과 언어적 표현능력 개발로 향상된다. 따라서 배우들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여 표현해내기 위하여 신체적, 언어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에서도 언어적 성격창조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화법에 의한 대사의 구사로 창조된다. 본고에서는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의 토대위에서 배우의 발성역량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발성역량으로 다양한 화법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배우들이 언어적 성격창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극중 인물의 언어적 성격창조를 위해 다양한 화법, 즉 말하는 방법과 양식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배우는 극중 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창조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언어적 성격창조의 한 방법으로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술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소리대본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화법 | 소리대본 | 호흡과 발성 | 음성의 다양화 | 성격창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usage of voice scripting for speech characterization. The ultimate goal of acting is for an actor to create one's character both in physical and vocal sense, and to present them on stage. Toward this goal, actors train themselves with various methods and techniques as well as character analysis. Most of their efforts are put into for better physical and vocal expression. The vocal characterization on stage is heavily governed by the proper speech based on the effective respiration and voice. This paper provides the way of how to use sound scoring for effective vocal characterization on stage.

■ keywords : | Speech | Voice Script | Voice | Versatile Voice | Characterization |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신입교수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1108-006

접수일자 : 2011년 11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12일

교신저자 : 이기호, e-mail : egiho@ks.ac.kr

1. 서론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여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는 성격분석 방법을 터득하는 한편, 다양한 연기훈련으로 연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연기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배우의 연기역량은 신체적 표현능력과 언어적 표현능력 훈련으로 향상된다. 배우의 이 두 가지 표현 능력에다 외모적 성격화를 더하면 역할창조가 완성되게 된다. 여기서 외모적 성격화는 분장, 의상 등으로 성격화하는 것이므로 배우의 연기역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들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체화하여 표현해내기 위하여 신체적, 언어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격을 창조하기 위한 배우의 노력은 다양한 연기술 개발로 진작되었고, 배우의 연기술은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체계화되어왔다. 첫 번째는 배우의 연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관력을 개발,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관력을 바탕으로 한 표현력을 배양하는 예술적 감수성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다. 예술적 감수성 훈련은 다른 아닌 신체적, 언어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므로 이 훈련이 배우의 연기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술적 감수성 훈련 중에서 신체적 표현능력은 고도로 체계화된 훈련방법과 훈련의 양에 따라 결실을 얻게 될 것이지만, 언어적 표현능력은 훈련의 양보다 훈련방법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언어적 표현능력은 호흡과 발성의 능력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호흡과 발성은 성대를 포함한 미세한 근육들의 운동으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일상적인 식습관이나 언어습관, 행동습관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사람이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들과 소통을 위한 언어적 습관들로 인해 성대는 무수히 손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날 때 타고났던 고유한 호흡과 발성 역량은 사람에 따라 심각하게 손상되어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더구나 배우의 경우는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이 연기표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연기역량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서 호흡과 발성능력을 꼽을 수가 있다.

공연활동의 특성상 언어적 표현을 많이 쓰는 배우들에게 있어서 과중한 음성의 사용에다 식습관, 언어습관 등을 비롯한 온갖 방해요소를 받으면서 ‘타고난 발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음성의 과중한 사용은 발성기관을 둔탁하게 만들기 쉽고,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일반인보다 음성의 다양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기지도자들은 배우의 호흡과 발성을 자유롭게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방법연구에 매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호흡과 발성훈련 방법들을 고안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전에는 배우들이 심리·신체적인 운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편협한 호흡과 발성지식에 의거한 훈련방법으로 언어적 표현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왔던 것이다. 이를테면 ‘성악의 벨칸토 발성법 또는 판소리 발성법을 배우의 발성법으로 변형시켜 적용해 온 사례[1][2]’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마다, 그들이 말하는 각 단어의 표현이 눈에 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3]. 이를 위하여 배우는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바탕으로 음성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음성 구사로 언어적 성격창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배우의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구현하면서도 연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격창조에 있어서 언어적 성격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음성의 다양화를 습득, 화법을 통한 성격표현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배우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한 과정으로서, 언어적 성격창조를 위해 화법의 성격표현에 활용할 소리대본의 작성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자가 미리 소리대본 작성법을 시도하여 도출된 결과를 ‘호흡과 발성’수업에서 연기전 공학생들에게 적용시켰다. 소리대본 작성법은 다양한 소리체록, 소리대본 매뉴얼 만들기, 소리대본 작성 그리

고 소리대본의 활용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II. 배우의 언어적 성격창조

1. 극중 인물의 성격창조

1.1 성격창조 유형

배우의 극중 인물창조는 일반적으로 성격창조 또는 역할창조라고 칭한다. 이러한 명칭은 극중 인물창조는 배우가 희곡 속의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의 성격을 창조하는 연기의 본질에 기인한다.

배우의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배우가 인물의 성격을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과 배우가 인물의 성격에 적응하여 자신의 습관적인 범주 안에서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한다[4].

배우의 극중 인물 성격창조는 세 가지 측면, 즉 외모적 성격창조, 신체적 성격창조 그리고 언어적 성격창조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의 연구는 성격창조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언어적 성격창조이며,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 성격창조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1.2 언어적 성격창조

배우에게는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내야하는 요구가 주어져 있다. 한 역할을 위한 준비의 한 부분으로써, 배우는 자신이 대사를 통해서 인물 성격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전달해 주는 데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4].

언어적 성격창조는 극중 인물의 성격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희곡이 대사로 쓰여 있음을 감안하면 언어적 성격창조의 중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극작가는 풍부한 역량의 변화로서 관객이 느끼게 될 심오한 감정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로서 대사에 변화를 주는데, 피치, 속도, 그리고 강조는 말하는 목소리에 가락과 박자, 그리고 강세와 함께 무한한 유연성을 부여한다. 피치는 음의 고저를 변화시키는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다양해진다. 속도는 박자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분위기와 배우의 해석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강조는 음악에서의 강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어나 구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이는 목소리가 단조롭게 발성된다[6].

배우는 극작가에 의해 창조된 인물의 성격을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사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여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발성과 화법을 연습하여 인물의 성격을 언어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2.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

2.1 호흡과 발성

2.1.1 배우의 발성역량

배우에게 있어서 호흡과 발성은 연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면서 또한 가장 다루기 힘든 장애물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은 배우의 연기역량을 확장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은 연기의 본질인 역할창조에도 직접적으로 가능하며, 배우의 연기미학을 결정짓는 표현술에 토대를 마련해 준다. 배우의 연기는 결국 배우의 소리와 몸짓에 의한 표현능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호흡과 발성 역량은 배우의 연기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

2.1.2 음성의 다양화

배우의 호흡 시스템이 자유로워졌다면 발성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소리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발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겠다.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통하여 배우는 다양한 음성을 구사할 수 있는 넓은 음역대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역대를 넓게 확장시키는 것은 음성의 다양성을 획득하는데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배우는 음역대 확장에 주력하여야 한다. 음역대의 확장

과 아울러 공명강 또한 개발해야 하는데, 주공명강과 부공명강의 운용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음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배우는 넓은 음역대를 활용하여 자신의 음성을 다양하게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생 역량을 ‘음성의 다양화[7]’라고 부른다. 음성의 다양화란 자신의 타고난 음질, 즉 음도, 음색, 세기 등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구사하는 능력과 다양한 말투에 걸맞은 발성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8].

2.1.3 발성과 화법

말하기는 신체적 활동이다. 호흡, 목소리, 그리고 말하기는 몸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이다. 이상적인 말하기에서 호흡은 텍스트와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배우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배우는 텍스트 안에서 호흡해야하고, 텍스트를 위해서 호흡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호흡 시스템은 자유롭고 유연하며 탄력적이어야 한다. 이 자유가 달성되면 배우는 자동적으로 작가의 호흡 패턴, 속도, 그리고 리듬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배우는 텍스트 내에서 호흡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의 호흡과 발성 시스템을 이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5].

배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울리는 영역과 질감을 찾아 하나의 총체로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능숙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신장시켜 어떠한 텍스트에도 잘 적응하도록 하여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9].

자유로운 호흡을 토대로 음성의 다양한 발생능력을 터득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이라도 언어적 성격을 창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2 음성의 성격표현

2.2.1 성격표현 요소

사람의 음성에는 저마다 고유한 음질이 있다. 배우는 자신의 고유한 음질을 구사하듯이 극중 인물의 성격을 음성적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인물의 고유한 음질을 파악하여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는 사람마다의 고유한 음질로서 음성의 성격표현에 다가설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고유한 음질로 대변되는 음성의 성격표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성의 성격표현 요소로는 우선 호흡의 측면에서 호흡의 패턴, 속도, 리듬을 들 수 있다. 음성의 측면에서 음성의 피치, 음색, 속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언어적 측면에서 성격표현이 있다고 하겠다.

음성의 성격표현은 배우가 새로운 극 중 인물을 만날 때마다 다른 성격창조를 위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음성을 다양하게 디자인(다양한 음역, 피치, 성량, 음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8].

2.2.2 성격표현 역량 개발

음성에 의한 성격표현 역량은 다양한 발생능력에 직결된다. 다양한 발생능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역대의 확장고 공명강 개발로 인해 획득할 수 있다. 음역대의 확장고 공명강의 개발은 배우로 하여금 다양한 음성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음성의 구사 역량은 음성에 의한 성격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발생 역량에 다름 아니다.

음성의 성격표현 역량은 배우의 구사능력으로도 획득된다. 배우가 배움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음성의 성격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풍부해진다. 다양한 배움의 구사는 주 공명강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공명의 정도와 부공명강 운용에 따라 음성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음성에 의한 성격표현 역량은 배우가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 역량의 토대 위에서 작가가 그려놓은 극중 인물의 음성적 성격의 호흡패턴, 속도, 리듬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넓은 음역대와 공명강의 자유로운 운용으로 다양한 발생 역량을 획득함으로써 음성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의 유연한 구사로 음성에 의한 성격창조 폭을 더욱 넓혀야 하겠다.

2.3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에 의해 유연한 발성을 구사할 수 있고, 음성의 성격표현 역량이 개발되어 있다면 배우는 자신의 소리에 모양과 질감, 그리고 색깔을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자극과 변화

에 반응하는 소리는 그 나름의 모양과 질감을 가지며, 색깔을 띠게 된다. 바로 화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음성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음성뿐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성격화를 하게 되면 음성에 의한 언어적 성격표현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2.3.1 성격표현 요소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 요소로 인물 특유의 말투, 억양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풍부한 억양의 변화는 피치, 속도, 강조로서 이루어진다[6]. 말은 특유의 어조, 리듬, 문장 만들기, 발음, 목소리 생산방식을 가진다[4]. 이러한 요소로서 말은 성격적인 모양, 질감, 색깔을 가진다.

일상생활에서나 무대 위에서나 사람들은 하나의 음색으로 단조롭게 말하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대상의 변화에 따라 말을 하는 몸의 상태가 끊임없이 바뀌고, 이에 따라 말소리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인물의 에너지, 성격 등이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소리에 숨어있는 움직임이란, 우선 말소리에서 리듬, 템포, 강세를 동반한 여러 가지 선의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사진행에 있어서 음성의 변형, 발전, 전환의 상태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음성의 다양성이 성격의 다양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인물의 성격을 찾는 데도 음성 분석이 효과적일 수 있다[8].

2.3.2 성격표현 방법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 방법은 배우들마다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성격화된 음성과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소리대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리대본의 작성 및 활용으로 배우가 대본을 소리대본으로 변환시켜서 언어적 성격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소리대본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III. 소리대본의 작성 및 활용

1. 소리대본의 작성

1.1 소리대본의 정의

일반적으로 대본의 대사는 하나의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다. 대사읽기를 용이하도록 대사와 지문의 글씨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도 더러 쓰인다. 하지만 배우들이 대본을 받을 때 대본의 모든 대사는 하나의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다.

소리대본은 일반적인 대본의 형식을 성격화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양한 글씨체와 굵기, 크기, 장평, 색깔 등을 이용하여 대사를 성격에 걸맞게 작성하는 것으로, 대사의 성격을 성격화된 글씨체로 변형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반적인 대본은 하나의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본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 감정, 말의 의미, 대상과의 관계 등을 유추해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작가가 대본을 다양한 글씨체로 소리대본화하여 작성하게 되면 대사의 성격을 고정화함으로써 오히려 창조적인 배우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을 하나의 글씨체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리대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글씨체나 크기, 장평, 색깔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표기법으로 회곡에 내재된 표현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작가가 대본을 소리대본으로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대본은 작가가 아닌 배우가 대사를 성격화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를테면 행동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 대상이 바뀌는 것, 행동의 목적이 바뀌는 것 등 소리대본으로 표기할 수 있는 대사를 성격에 걸맞게 소리화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배우가 소리대본을 통하여 대사를 효과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우의 소리대본 작성 및 활용으로서 음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리의 성격화를 훈련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다양한 음역대 확장훈련과 공명강 운동 등 발성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물의 성격창조에도 유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 소리대본의 작성방법

소리대본 작성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본을 소리대본화하기 전에 실제 소리를 채록하여 소리분석을 통하여 소리대본 매뉴얼을 만들고, 소리대본 매뉴얼에 따라 소리대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작성된 소리대본 작성법에 따라 대본에 적용하여 소리대본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소리대본 작성을 위해 연구자는 남대문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실제 재래시장 상인이 가판대 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목소리를 채록하여 소리대본 작성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인의 다양한 화법을 채록할 수 있었고, 채록된 소리를 가지고 소리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2.1 소리채록

배우는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의 음성적 성격을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사람의 선천적 능력으로 특별한 훈련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창을 잘 하는 사람의 경우, 소리채록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이면서도 탁월한 포착능력은 다른 아닌 주의집중과 반복학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의 소리로부터 음성적 특징을 포착해내는 능력은 바로 얼마나 주의 깊게 주변의 소리에 내재된 음성적 특징들을 포착해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모창, 모사가 모두 소리채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배우에게 보컬라이프는 내부의 에너지가 발현된 것 그 이상이다. 이러한 에너지의 역동성 위에 존재하는 창의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알맞을 것이다. 창의적인 도구로서, 생생한 보컬라이프를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경험하고 살살이 파헤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단순히 감정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동성과, 언어의 의미, 새로운 심상,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예상되지 않은 해석과 감정에 대한 무수한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강력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10].

주변의 일상적인 소리를 채록하는 것으로 배우는 자신의 ‘보컬라이프[11]’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는 낼 수도 없다. 따라서 외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를 훈련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잠재된 발성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외부 소리로의 관심은 결국 자신의 발성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소리채록 방법은 소리를 취재하여 녹음하는 것이다.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말하는 사람의 독특한 억양을 들을 수 있고, 독특한 화법을 포착하게 된다. 소리채록의 대상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소리를 채록할 수도 있다. 한 인물이 다양한 화법을 구사한다면 한 사람을, 다양한 인물들이 한 곳에서 저마다 다양한 화법을 구사한다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화법을 함께 채록하여 소리대본으로 작성하는 것도 소리훈련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처음 소리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소리채록을 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리의 감정이나 의미 등에 얽매이지 말고 소리 그 자체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감정이나 의미에 치중하다보면 소리 그 자체의 특징들을 포착해내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배우는 소리 그 자체의 특징들, 즉 소리의 뉘앙스나 독특한 말투, 억양, 거리감 등의 화법을 포착해내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소리를 새롭게 들어야 한다. 소리를 새롭게 들으려고 하면 아무리 익숙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인식되기 마련이며, 그럼으로써 평소에는 포착되지 않던 소리의 성격이나 특징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방문한 남대문 재래시장에서 짧은 시간동안 매우 다양한 화법을 구사하는 상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의 화법을 녹음할 수 있었다.

1.1.2 소리분석

채록된 소리는 일반적인 대본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1차 대본을 보며 녹음된 소리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소리의 화법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배우의 소리훈련에서 듣고 말하기는 매우 효과적인

대사방법이다. 어떠한 인물의 성격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인물의 말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인물의 언어적 성격창조는 매우 쉽게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극중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배우는 극중 인물의 말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극중 인물과 아주 흡사한 인물의 유형을 찾아서 인물특유의 화법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소리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녹음된 소리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소리의 독특한 화법을 분석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우는 녹음된 소리, 즉 한 사람의 다양한 화법이나 여러 사람의 다양한 화법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의 특유함을 알아챌 수 있고, 그들에게 공통되는 화법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 기분의 변화, 의도의 변경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화법 사용의 범주를 아우르는 대화의 표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채록된 소리에는 여러 가지 리듬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변형이 있을 것이다[4].

남대문 재래시장에서 채록된 상인의 소리를 대본으로 옮겨서 [표 1]과 같이 1차 대본으로 작성하였다.

표 1. 1차 대본

상인 : 골~라아! 골~라아! 골라잡아 오천원! 무조건 오천원! 지금부터 십분! 딱 십분간만 할인합니다아. 자~ 지금부터 십분, 딱 십분간만 오천원, 오천원! 아줌마! 줄을 서세요! 줄을! 어이! 김양아, 내건 없어? 아줌마! 그럼 그렇지! 흥흥! 알았져! 일 끝나고 그쪽으로 갈게! 아줌마! 내가 말 했잖아요! 줄을 서시라고! 아, 거참! 자~ 지금부터 십분, 딱 십분간만 오천원, 오천원 한장으로 모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배달부에게) 아 저씨! 빈 그릇 가져가야지! (돈을 받으며) 네! 두 장에 만원되겠습니다. 아저씨! 빈 그릇 안 가져가! (혼잣말로) 짜식 귀가 먹었나? 오천원! 무조건 오천원! 할인 마감 일본 진!

1.1.3 소리대본 메뉴얼 만들기

소리분석을 통하여 포착된 소리의 성격대로 소리대

본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이다. 소리대본 메뉴얼은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굵기, 장평, 색깔 등을 활용한다. 소리 메뉴얼은 채록된 소리의 종류가 몇 개냐에 따라 메뉴얼 양식이 정해지며, 채록된 소리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글씨체 등을 정한다.

재래시장 상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채집하여 1차 대본을 작성하고 소리를 분석한 후 글씨체와 굵기, 크기를 사용하여 [표 1]과 같이 소리대본 메뉴얼을 작성하였다.

[표 1] 1차 대본에서는 소리의 특징이 글로써 잘 드러나지 않지만 녹음된 상인의 목소리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호객하는 화법, 험상궂게 화내는 화법, 다방 아가씨에게 추파를 던지는 화법, 애교를 떠는 화법, 고함을 치는 화법,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화법, 혼잣말 화법 등을 포착할 수 있었다.

1차 대본의 내용을 녹음된 소리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소리의 특성들을 분석해내고, 분석된 화법에 따라 [표 2]와 같이 소리대본 메뉴얼을 작성하였다.

표 2. 소리대본 메뉴얼

염서체(10p) : 호객하는 화법
목각파임체(12p) : 험상궂은 화법
핑기체(9p) : 추파를 던지는 화법
강녕용체(9p) : 애교섞인 소리
양재소술체(14p) : 고향소리
그래픽체(9p) : 돈을 받는 화법
혼잣말(10p), 지문(8p) : 신명조체

소리대본 메뉴얼은 채록된 소리성격의 종류에 따라 작성하므로 채록된 소리만큼 메뉴얼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1.1.4 소리대본 쓰기

소리채록으로 작성된 1차 대본을 소리대본 메뉴얼에 따라 소리대본으로 작성하는 2차 대본작성 과정이다.

1차 대본에 소리대본 메뉴얼을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2차 대본인 소리대본으로 작성하였다. 1차 대본과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나, 1차 대본과 소리대본은 언뜻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연기전공 학생들에게 두 가지 대본을 읽히는 과정에서는 화법의 성격표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상인의 대사를 분석하지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대본만으로도 소리의 성격에 맞는 화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1차 대본읽기는 단조로운 책읽기에 치중되었고, 2차 대본은 읽기보다는 말하는데 치중되었으며, 또한 다양하게 성격화된 화법을 구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1차 대본을 읽을 때는 단조롭게 읽게 된 반면 2차 대본인 소리대본을 읽을 때는 소리대본 매뉴얼에서 표기된 소리의 화법대로 말을 하고 있었고, 이 점에서 본 연구자는 소리대본 작성법을 제시함으로써 소리대본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소리대본

상인 : 골~라아 골~라아 골라잡아 오천원! 무조건 오천원! 지금부터 10분! 딱 10분간만 할 인합니다아. 자~ 지금부터 십분, 딱 십분간만 오천원, 오천원! 아줌마! 줄을 서세요! 줄을! 어이! 깁양아, 내건 없어? 아줌마! 그런 그렇지! 흥흥! 알았져! 일 끝나고 그쪽으로 갈게! 아줌마! 내가 말 했잖아요! 줄을 서시라고! 아, 개참! 자~ 지금부터 십분, 딱 십분간만 오천원, 오천원 한장으로 모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배달부에게) 아저씨! 빈 그릇 가져가 야지! (돈을 받으며) 네! 두 장에 만원되겠습니다. 아저씨! 빈 그릇 안 가져가! (혼잣말로) 짜식 귀가 먹었나? 오천원! 무조건 오천원! 할 인마감 일본 전!

2. 소리대본의 활용

2.1 소리대본의 수업적용

남대문 재래시장 상인의 소리를 채록하여 작성한 소

리대본을 호흡과 발성교육에 적용하여 연기전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소리대본은 화법훈련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소리대본의 활용은 호흡과 발성, 발성의 다양화, 다양한 화법구사로 극중 인물의 언어적 성격창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소리대본의 활용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리대본을 활용한 호흡과 발성은 배우의 호흡과 발성을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발성의 전환, 변형을 통해서 호흡과 발성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고, 발성의 감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2 소리대본의 활용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리대본의 작성 및 활용으로 배우의 호흡과 발성훈련 그리고 화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소리대본의 화법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공명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하고, 주공명강과 부공명강의 유기적인 운용으로 소리대본의 다양한 화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대본의 활용은 공명강 개발을 촉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소리대본에서 나타나는 화법의 다양성은 배우의 음성이 다양하게 구사될 때 가능해지므로 화법의 다양성은 음성의 다양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들은 자신의 음성을 다양하게 발성할 수 있도록 자극받게 되며, 발성훈련으로 발성의 폭을 더욱 넓혀가게 되는 것이다. 음성의 다양화는 음역대를 확장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지므로 배우의 호흡과 발성 훈련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리대본의 활용은 배우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인물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화법의 특징들을 지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본분석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화법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리대본의 활용은 바로 배우의 다양한 호흡과 발성 능력, 화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2.3 소리대본의 희곡 적용

소리대본의 활용은 배우의 호흡과 발성 훈련, 화법훈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무대연기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희곡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장 아누이 작 《안티고네》 [12] 희곡을 선택하였다. 희곡 중에서 안티고네가 하이몬에게 이별을 전하는 대사의 일부를 발췌하였고, 그 결과 표 5와 같이 소리대본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소리대본 매뉴얼을 적용하여 작성된 안티고네 소리대본이 [표 6]과 같이 작성되었다.

표 4. 《안티고네》 희곡의 일부본

안티고네 :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이몬. (낮은 목소리로) 당신한테 간 것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이몬이 뒤로 물러서며 말하려고 한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기로 맹세했죠? 당신은 맹세했어요. 하이몬! (낮은 소리로) 제발--- (돌아서면서) 당신에게 말해 버리겠어요. 아! 사랑하는 당신 용서해줘요. 난 절대로 절대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하이몬은 놀래서 말없이 서 있다. 창가로 달려가서 소리친다.) 하이몬 당신은 나한테 맹세했어요! 자! 이제 나가세요. 아무 말도 말고 나가세요. 당신이 말을 하거나 한 걸음이라도 내게 다가온다면, 난 이 창문으로 뛰어 내리겠어요.

표 5. 《안티고네》의 소리대본 매뉴얼

중고딕체(10p) : 단호한 화법
 가난한체(9p) : 소극적인 화법
양재소슬체(12p) : 소리치는 화법
 펜힐림체(9p) : 간절한 화법
 휴먼편지체(11p) : 감정적으로 애절한 화법
맑은고딕체(12p) : 냉정하고 결연한 화법
 지문(9p)

표 6. 《안티고네》의 소리대본

안티고네 :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이몬. (낮은 목소리로) 당신한테 간 것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이몬이 뒤로 물러서며 말하려고 한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기로 맹세했죠? 당신은 맹세했어요. 하이몬!** (낮은 소리로) 제발--- (돌아서면서) 당신에게 말해 버리겠어요. 아! 사랑하는 당신 용서해줘요. 난 절대로 절대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하이몬은 놀래서 말없이 서 있다. 창가로 달려가서 소리친다.) 하이몬 당신은 나한테 맹세했어요! 자! 이제 나가세요. 아무 말도 말고 나가세요. 당신이 말을 하거나 한 걸음이라도 내게 다가온다면, 난 이 창문으로 뛰어 내리겠어요.

[표 6]과 같이 작성된 소리대본을 연기전공 학생들에게 읽혔을 때, [표 4]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된 대사와 비교하여 화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단조롭게 책읽기로 대본을 읽던 배우들이 소리대본을 읽을 때는 즉각적으로 성격화된 화법으로 말하기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소리대본 작성으로 의도했던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이 음성의 다양화와 성격화된 화법의 구사로서 인물의 언어적 성격창조가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리대본의 작성 및 활용은 호흡과 발성 및 화법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연기에 있어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배우의 언어적 성격창조를 위하여 시도했던 화법에 의한 성격표현에 활용할 소리대본 작성법은 호흡과 발

성훈련, 음성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배우의 화술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배우들이 소리대본 작성법을 터득하여 극중 인물의 성격창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배우가 소리대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통한 음성의 다양화를 체득하도록 자극하고, 공명강 개발과 음역대 확장으로 발성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양한 화법을 구사할 수 있게 하여 극중 인물의 성격을 언어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연기역량을 도모토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리대본 작성이 단지 소리대본을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득되고 개발되는 다양한 감각훈련, 다양한 화법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각능력 개발,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소리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도의 인지능력이 개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리대본을 읽으면서 소리를 반응으로 표출해내는 연기의 전 과정을 학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소리대본 작성 과정은 배우가 감각, 지각, 인지, 반응과 직결되는 모든 신체행동에서 발생하는 느낌을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래시장에서의 소리채록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대본 작성법에 따른 그 활용도는 배우의 극중 인물창조과정에서 언어적 성격창조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의 호흡과 발성 훈련에 이은 화법훈련방법으로서 화술 훈련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배우의 감각, 지각, 인지, 반응훈련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참 고 문 헌

[1] 이기호, “배우의 미학적 발성을 위한 판소리의 활용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pp.181-192, 2009.
 [2] 최낙희, *서양 기초발성과 판소리 발성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3] Patsy, Rodenburg, *The Actor Speaks: Voice and*

the Performer.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4] M. Michael, *The voice Book*, Theater Arts Books, 1988.
 [5] P. Rodenburg, *The Need for Words Voice and the Text*. New York: Theatre Arts Book, 1993.
 [6] M. Evangeline, *Speech for the Stage*, Routedge, A Theatre Arts Book, 1992.
 [7] K. Stanley, *Introduction to Acting*, Allyn and Bacon, 1991.
 [8] 김여진, “음성의 성격화를 위한 음역확장 훈련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1.
 [9] B. Cicely, *Voice and the Acto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3.
 [10] Lessac, Arthur, *The Use and Training of the Human voice*, Mc Graw Hill, 1996.
 [11] 김숙희 편역, *르샤기법의 발성과 스피치*, 연극과 인간, 2005.
 [12] 장 아누이, 안보옥, *장 아누이의 안티고네*, 지식을 만드는지식, 2011.

저 자 소 개

이 기 호(Ki-Ho Lee)

정희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연극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박사수료)

- 2008년 3월 ~ 2010년 2월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초빙외래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연극연출, 연기, 호흡과 발성, 실험극, 배우심리상담